

'서울 취업자 수' 55세 이상이 청년층 첫 추월

- 서울시, 「서울 고용노동·산업의 구조변화 및 시민 직업관」 25일(월) 발표
- '12년 취업자 중 55세이상(95만6천명)이 15~29세(90만3천명) 처음으로 추월
 - 10년 사이 55세 이상 취업자 54.4%↑, 15~29세 청년층 -25.1%↓
 - '12년 서울 15세 이상 취업자 503만6천명, 10년 전보다 5.3% 증가
- 취업자 중 직업은 전문직·사무직(46.1%)이 많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49.4%
- '12년 5인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49만원, 근로시간 166시간
- '11년 직업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수입(36.2%)과 안정성(29.6%)
-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 국가기관,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후 희망 일자리는 소규모자영업
- '11년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90.8%('86년 77.5%)로 경제성장 주도

□ 서울시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의 55세 이상 취업자는 95만 6천명으로 15~29세 취업자인 90만 3천명의 청년층 보다 많았다.

□ 이는 '89년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89년에는 15~29세 취업자 비중이 35.9%로 높았으나 '12년 17.9%로 줄어든 반면, '89년 6.6%에 불과하던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12년 19.0%로 3배나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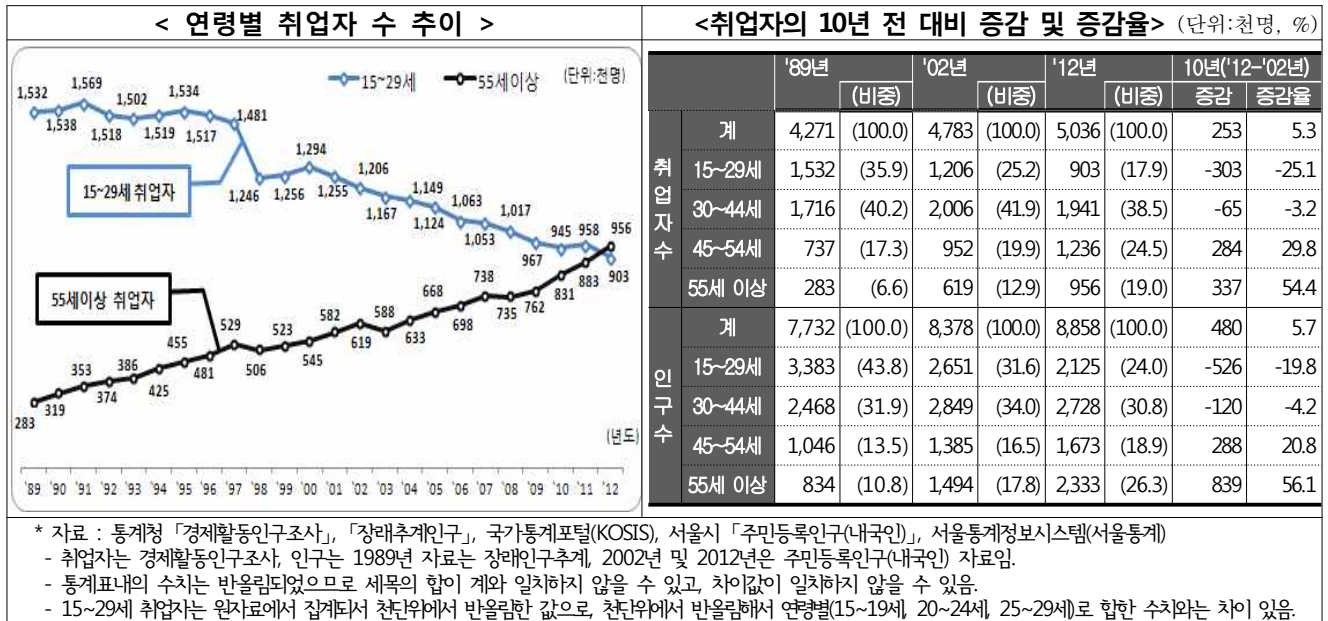
- '89년 : 15~29세(35.9%), 30~44세(40.2%), 45~54세(17.3%), 55세이상(6.6%)
- '02년 : 15~29세(25.2%), 30~44세(41.9%), 45~54세(19.9%), 55세이상(12.9%)
- '12년 : 15~29세(17.9%), 30~44세(38.5%), 45~54세(24.5%), 55세이상(19.0%)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고용노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상을 짚어보고 시의 각종 노동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통계자료는 물론 고용노동부,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서울 노동·산업의 구조변화 및 시민 직업관 분석현황」을 25일(월)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사회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했다.

〈지난해 취업자 중 55세 이상이 15~29세 첫 추월 55세 이상 10년 새 33만7천명↑〉

-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취업자 중 55세 이상이 '02년 61만9천명에서 '12년 95만6천명으로 10년 새 33만7천명(54.4%) 증가한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같은 기간 120만6천명('02년)에서 90만3천명('12년)으로 30만3천명(-25.1%) 감소하여 2012년에는 55세 이상 취업자가 15~29세 보다 많아졌다.
 - 지난 10년동안 인구(내국인)는 15~29세가 52만6천명(-19.8%) 감소했고, 55세 이상 인구는 83만9천명(56.1%) 증가했다.
 - 15세 이상 취업자는 10년 새 25만3천명(5.3%) 증가하여 '12년 503만6천명이다.
- 이러한 연령별 취업구조의 변화 원인으로 “청년층의 인구감소 및 학업기간 연장,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취업준비기간 증가 등으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한편,

중고령자의 취업증가 및 취업현장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취업자 중 직업은 전문직·사무직(46.1%)이 많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49.4%>

- 2012년 취업자 503만6천명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직(25.5%, 128만4천명)과 사무직 종사자(20.6%, 103만8천명)가 전체 취업자 중 46.1%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다음으로 판매직 13.0%(65만4천명), 단순노무직 11.8%(59만2천명), 서비스 종사자 11.0%(55만5천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1%(45만9천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6.4%(32만2천명) 등의 순이다.
-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취업자의 주 학력층이 '06년부터 대학졸업이상으로 바뀌었으며, '12년 취업자의 절반이 대졸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02년 전체 취업자 중 44.8%를 차지하던 고졸 취업자 비중은 '12년 37.0%로 감소한 반면, 대졸이상은 '02년 34.1%에서 '12년 49.4%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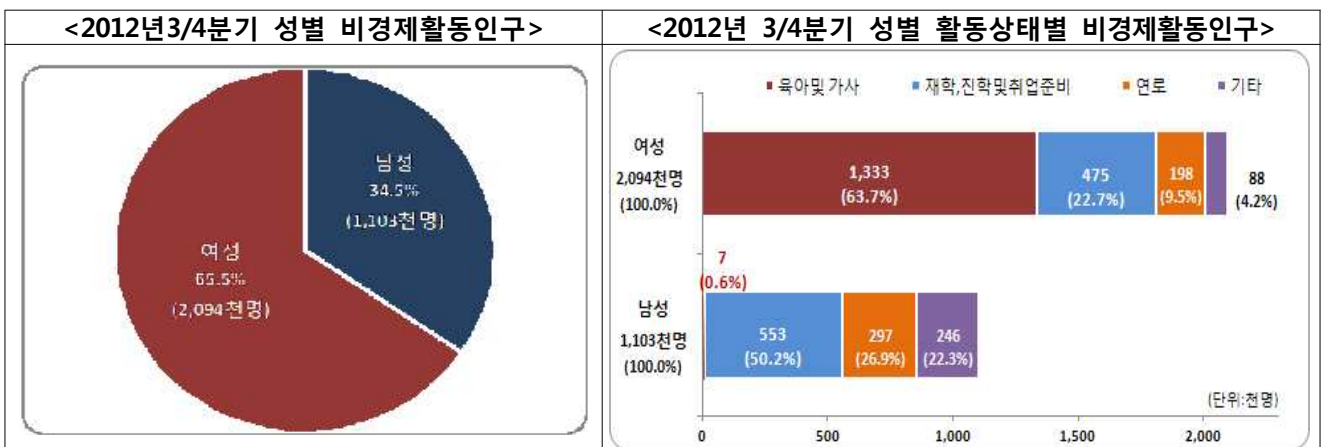
<직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						
직업별 종사자	'05년		'12년		7년전 대비	
	수	비중	수	비중	증감	증감율
계	4,890	(100.0)	5,036	(100.0)	146	3.0
관리자	160	(3.3)	122	(2.4)	-38	-23.8
전문가 및 관련직	1,041	(21.3)	1,284	(25.5)	243	23.3
사무직	816	(16.7)	1,038	(20.6)	222	27.2
서비스직	587	(12.0)	555	(11.0)	-32	-5.5
판매직	782	(16.0)	654	(13.0)	-128	-16.4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4	(0.1)	11	(0.2)	7	17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606	(12.4)	459	(9.1)	-147	-24.3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직	308	(6.3)	322	(6.4)	14	4.5
단순노무직	587	(12.0)	592	(11.8)	5	0.9

<학력별 취업자> (단위:천명)						
학력	'02년		'05년		'12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대졸이상	2,144	(44.8%)	2,052	(41.8%)	2,128	(43.1%)
고졸	1,629	(34.1%)	1,974	(40.4%)	2,012	(40.7%)
중졸이하	1,010	(21.1%)	864	(17.7%)	683	(13.6%)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내의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수치의 차이나 세목의 합이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남성의 거의 2배 수준, 육아 및 가사가 주 원인>

- 2012년 3/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서울 15세이상 비경제활동 인구는 319만7천명이고, 이중 여성이 65.5%(209만4천명)를 차지하여 남성 비경제활동인구(110만3천명)의 거의 2배 수준이다.
- 여성의 주된 비경제활동 사유는 ‘육아 및 가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및 가사가 63.7%(133만3천명), 재학, 진학 및 취업준비가 22.7%(47만5천명), 연로 9.5%(19만8천명) 순.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50.2%(55만3천명)가 공부(재학·진학준비·취업준비)중이며, 연로 26.9%(29만7천명), 기타 22.3%(24만6천명) 순이다.



*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와 실업자가 아닌자로 취업자가 아닌 자 중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의사는 있으나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
 - 기타 :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쉬었음 등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49만원, 근로시간 166시간>

□ 2012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농림어업 부문 제외, 4월 기준)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9만원으로 2011년 대비 2.2%(7만5천원) 상승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총액¹⁾은 328만9천원으로 2011년(330만9천원) 대비 0.6% 감소했다.

○ 산업별로 보면 2012년 4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70만2천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51만원) 순이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177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215만5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6시간으로 전년대비 8.9시간(-5.1%) 감소했다.

○ 산업별로 보면,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8.8시간), 부동산업 및 임대업(178.7시간) 순이고, 가장 짧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159.1시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59.8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구분(상용 5인 이상 사업체, 농림어업 제외)	월평균 임금 총액				월평균 근로시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전산업 (5인 이상, 농림어업 제외)	3,415	3,490	75	(2.2)	174.9	166.0	-8.9	(-5.1)
광업	3,256	3,473	217	(6.7)	174.8	167.8	-7.0	(-4.0)
제조업	3,180	3,429	250	(7.9)	177.4	167.6	-9.8	(-5.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475	4,434	-41	(-0.9)	183.6	164.6	-19.0	(-10.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388	2,588	200	(8.4)	185.4	177.2	-8.2	(-4.4)
건설업	3,483	3,547	64	(1.8)	174.6	165.6	-9.0	(-5.2)
도매 및 소매업	3,339	3,380	41	(1.2)	175.9	167.5	-8.4	(-4.8)
운수업	3,487	3,470	-17	(-0.5)	173.5	165.3	-8.2	(-4.7)
숙박 및 음식점업	2,112	2,155	43	(2.0)	202.2	198.8	-3.4	(-1.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735	3,897	162	(4.3)	169.0	162.6	-6.4	(-3.8)
금융 및 보험업	5,337	5,702	366	(6.8)	166.2	159.1	-7.1	(-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29	2,865	36	(1.3)	184.9	178.7	-6.2	(-3.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316	4,510	194	(4.5)	169.7	159.8	-9.9	(-5.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50	1,770	20	(1.2)	176.1	162.7	-13.4	(-7.6)
교육서비스업	3,494	3,691	198	(5.7)	172.0	162.3	-9.7	(-5.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36	3,143	107	(3.5)	175.7	168.6	-7.1	(-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461	2,693	233	(9.5)	182.8	172.1	-10.7	(-5.9)
협회·단체인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612	2,663	51	(2.0)	179.5	169.8	-9.7	(-5.4)

* 자료 :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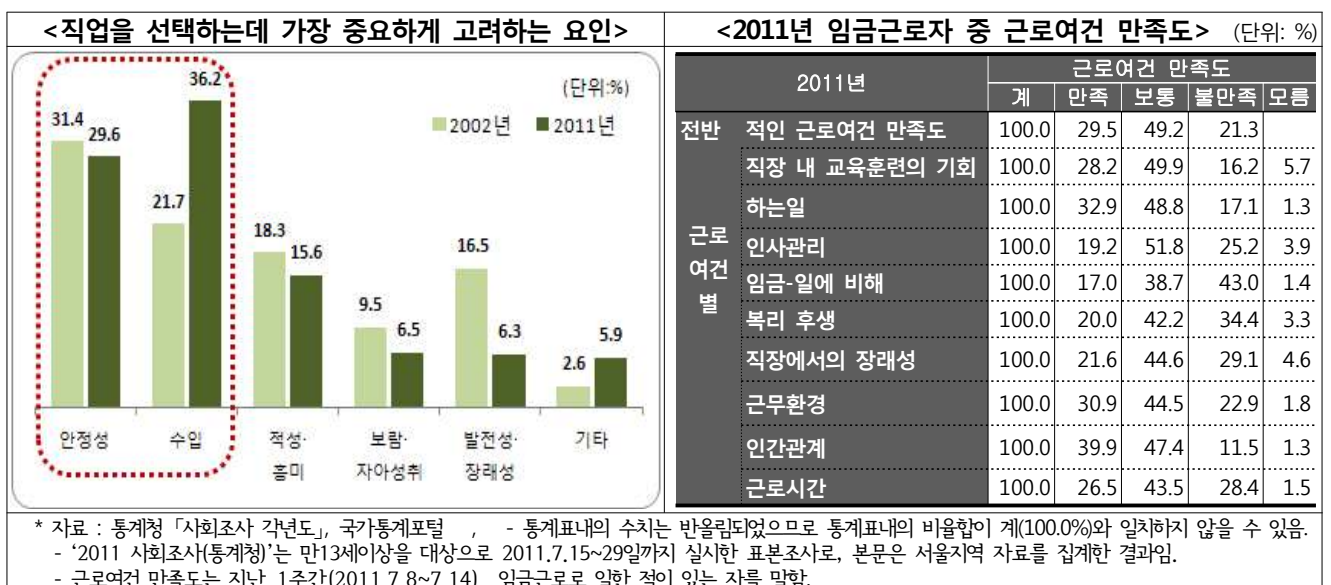
- 월 평균 임금총액 =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 통계표내의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차이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실질임금총액은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2012년 실질임금총액(4월기준) = '12년 임금총액(명목)/12년4월 소비자물가지수(106.1)×1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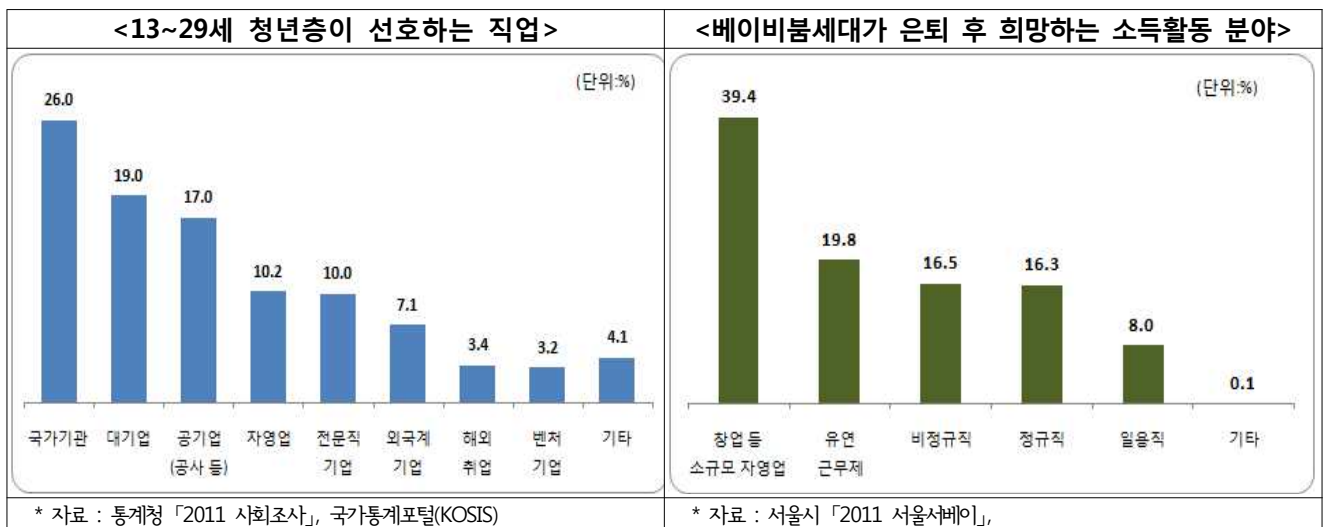
<직업선택 시 '수입안정성' 가장 중요, 취업자 임금 불만 높고, 일자리 불안 느껴>

- 2011년 13세 이상 서울시민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수입(36.2%)과 안정성(29.6%)을 꼽았다.
 - 특히, 수입을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견해는 2002년 21.7%에서 14.5%p 증가했다.
- 직업선택 시 수입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 19세 이상 취업자들은 여러 근로여건 중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절반 이상은 일자리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19세이상 취업자에게 전반적인 근로여건 만족도를 묻은 결과 만족이 29.5%, 보통 49.2%, 불만족 21.3%로 나타났으며, 근로여건 중 인간관계에서 만족률(39.9%)이 가장 높았고, 임금에서 불만족(43.0%)이 가장 높았다.
 - 특히, 임금에서의 불만족률은 만족률(17.0%)보다 2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 또한, 2011년 서울 취업자 중 고용 불안(평소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뀌야 한다)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61.4%(남성 64.5%, 여성 57.1%)로 나타났다으며, 매우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19.9%나 됐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 1위 국기관 베이비붐세대 은퇴 후 희망 일자리 1위 자영업〉

- 2011년 13~29세 서울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6.0%)이며, 다음으로 대기업(19.0%), 공기업(17.0%) 순으로 나타났다.
- 베이비붐세대(2011년 기준 만 48~56세) 중 68.3%가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가장 희망하는 소득활동 분야로는 창업 등 소규모 자영업이 39.4%로 가장 많고, 유연근무제(19.8%), 비정규직(16.5%), 정규직(16.3%), 일용직(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1년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90.8%(86년 77.5%)로 경제성장 주도〉

- 2011년^p 말 서울 산업구조(총부가가치=100으로 산출)는 서비스업 비중이 90.8%를 차지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4.7%), 건설업(3.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7%), 농림어업(0.2%) 순이다.
- 서비스산업 중에서 도·소매업(17.7%), 금융 및 보험업(15.7%), 사업 서비스업(11.9%), 부동산업 및 임대업(10.8%), 정보 및 통신업(9.9%), 교육서비스업(6.1%)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986년(25년 전)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13.3%p 증가한 반면, 제조업(-6.7%p), 건설업(-5.1%p)은 각각 감소했으며, 2010년(전년) 대비해서는 서비스업 비중은 0.7%p 증가, 제조업(-0.3%p), 건설업(-0.3%p)이 각각 감소했다.
-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업 비중은 1986년 24.8%에서 2011년^p 17.7%로 낮아졌으며, 운수업 비중도 6.1%에서 3.4%로 감소한 반면, 사업서비스업(5.1%→11.9%), 정보 및 통신업(4.5%→9.9%), 금융 및 보험업(11.2%→15.7%)은 비중이 높아졌다.
- 전년(`10년) 대비해서는 운수업(3.7%→3.4%) 등의 비중이 낮아졌으나, 도소매업(17.0%→17.7%), 금융 및 보험업(15.5%→15.7%) 등의 비중은 높아졌다.

<경제활동별 서울 지역내총부가가치 및 산업구조> (단위 : 억원, %, %p)

구분	경제활동별(산업별) 총부가가치			산업구조(총부가가치=100으로 비중 산출)				
	1986년	2010년	2011년 ^p	1986년	2010년	2011년 ^p	증감	
						2011년-1986년 (25년 전 대비)		2011년-2010년 (전년대비)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명목)	242,798	2,451,379	2,555,351	(100.0)	(100.0)	(100.0)		
농림어업	2,862	4,900	4,895	(1.2)	(0.2)	(0.2)	-1.0	0.0
광업	112	517	180	(0.0)	(0.0)	(0.0)	0.0	0.0
제조업	27,812	123,226	120,358	(11.5)	(5.0)	(4.7)	-6.7	-0.3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692	17,890	17,343	(1.1)	(0.7)	(0.7)	-0.4	-0.1
건설업	21,061	94,714	91,467	(8.7)	(3.9)	(3.6)	-5.1	-0.3
서비스업	188,259	2,210,132	2,321,108	(77.5)	(90.2)	(90.8)	13.3	0.7
도매 및 소매업	60,224	415,912	452,858	(24.8)	(17.0)	(17.7)	-7.1	0.8
운수업	14,764	91,323	86,644	(6.1)	(3.7)	(3.4)	-2.7	-0.3
숙박 및 음식점업	3,549	70,436	73,301	(1.5)	(2.9)	(2.9)	1.4	0.0
정보 및 통신업	10,980	239,447	252,543	(4.5)	(9.8)	(9.9)	5.4	0.1
금융 및 보험업	27,281	379,646	400,184	(11.2)	(15.5)	(15.7)	4.4	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568	266,089	275,810	(8.5)	(10.9)	(10.8)	2.3	-0.1
사업서비스업	12,266	292,113	303,268	(5.1)	(11.9)	(11.9)	6.8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958	117,452	123,590	(4.5)	(4.8)	(4.8)	0.3	0.0
교육서비스업	11,288	151,915	156,407	(4.6)	(6.2)	(6.1)	1.5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369	101,787	109,342	(2.6)	(4.2)	(4.3)	1.7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263	34,854	36,431	(1.3)	(1.4)	(1.4)	0.1	0.0
기타서비스업	6,749	49,158	50,728	(2.8)	(2.0)	(2.0)	-0.8	0.0

* 자료 : 통계청 「지역소독」, 국가통계포털(KOSIS), p는 잠정치임.
- 사업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 노동·산업 통계 분석을 통해 55세이상 취업자는 늘고, 청년취업자가 줄어드는 등 노동구조의 변화 등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